

김달진 미술자료관장 “평생 모은 ‘보물’ 전시할 공간 필요”

‘걸어다니는 미술사전’ ‘움직이는 미술자료실’ ‘미술계의 114’. 30년 동안 18t이 넘는 방대한 미술자료를 모아온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김달진 관장(58·사진)의 이름 앞에 붙는 별칭들이다.

고졸 학력으로 변변한 미술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국립현대미술관 일용직 출신인 그가 미술계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통하게 된 것은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일찍 눈을 뜬 덕분이다.

김 관장은 고교를 졸업하면서부터 미술자료 수집에 나섰다. 미술잡지사 3년,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 15년, 화랑에서 6년을 각각 보내면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모을 수 있었다. 그 결과물이 2008년 국내 최초로 세운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이다. 평생 발품을 팔아 모은 단행본·작가화집 2만2000여권, 정기간행물 335종 1만여권, 미술학회지 57종 1000여권, 팸플릿 2만3000여점, 작가 개인파일 270여권 등 국내 최대 규모다. 개관 이후 지금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김 관장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차지원사업에 선정돼 박물관을 현재의 위치(서울 마포구 창천동)로 옮겨 운영해왔는데, 그 지원

기간이 끝나가기 때문이다. 최근 박물관에서 만난 김 관장의 표정은 어두웠다.

“새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면 평생 모은 자료들을 싸들고 길거리에 나앉을 판입니다. 현재 손에 쥔 돈으로는 서울 시내에 자리 잡는 것은 엄두도 안 나고요. 공적인 기관에서 자료를 맡아만 준다면 모든 자료를 기증할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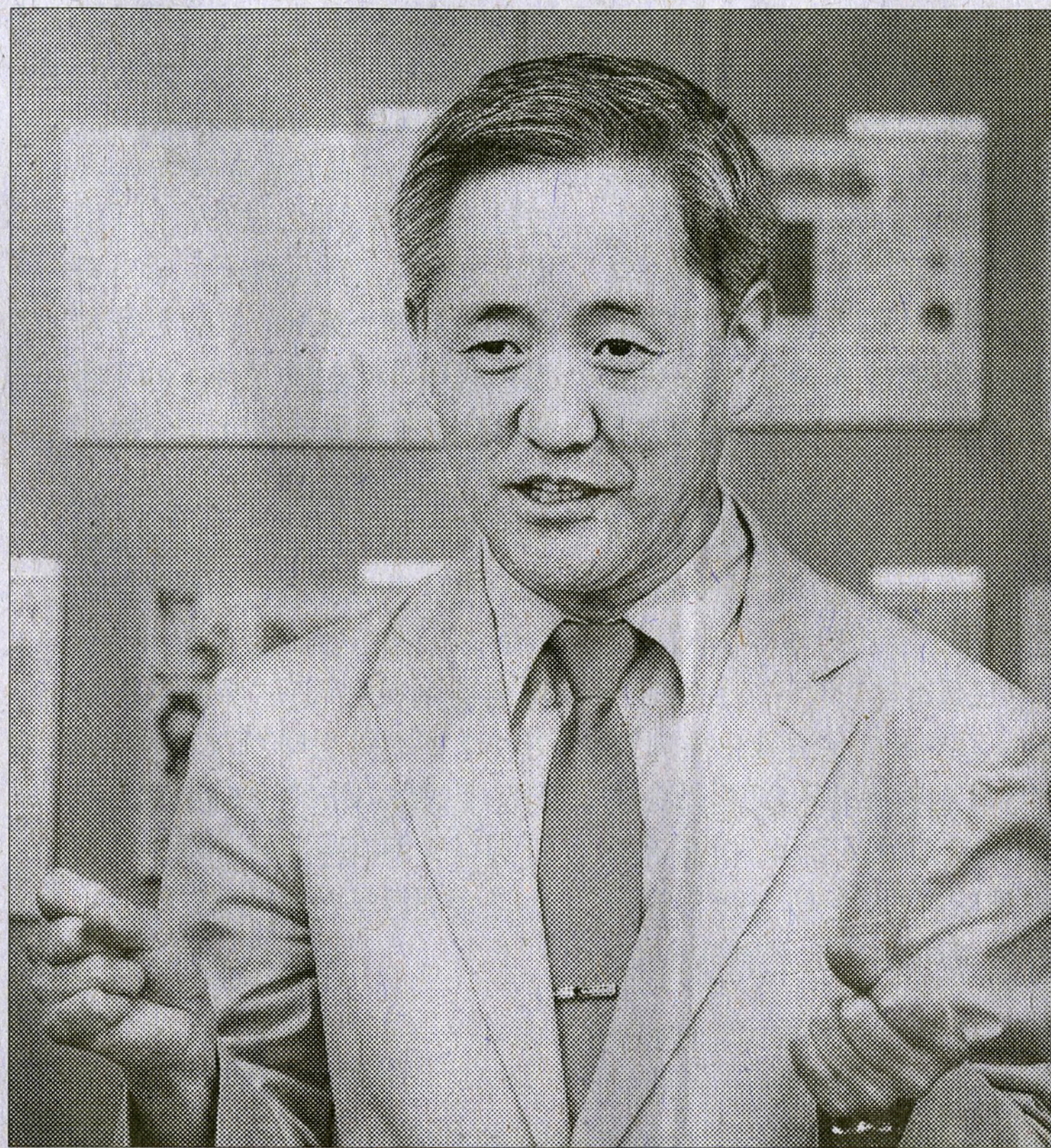
김 관장은 소모품쯤으로 여기는 전시 팸플릿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발견한 첫번째 미술인으로 평가받는다.

“미술 전시회의 주인은 물론 작품이죠. 그러나 전시회가 끝나면 작품은 제 갈 길로 가고 마지막까지 그 전시회를 말해주는 것은 도록과 팸플릿, 포스터, 사진, 신문기사 등의 자료들뿐입니다.”

그동안 우리 미술계는 창작과 전시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간행물 등 미술 관련 자료의 보존 및 연구에는 소홀했다는 게 김 관장의 생각이다.

“이제부터라도 미술아카이브는 국가의 유산, 공공 기록물로 인식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록보관 시스템은 그 나라의 문화수준이자 문화적 경쟁력을 재는 척도입니다.”

가끔 무명 작품이나 작가가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로 다시 자리매김되



는 경우가 있다. 김 관장은 이런 일이 미술아카이브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1차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품과 작가의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관장은 구슬을 꿰듯이 1차 자료를 2차 자료로 재구성하는 데도 관심

이 많다. 1850년 이후 출생한 한국 근현대 미술계 인사 4909명을 총정리한 <대한민국미술인 인명록>을 비롯해 <한국현대미술 해외진출 60년> <외국미술 국내전시 60년> 등을 책으로 펴냈다. 최근에는 1945년 이후 설립된 미술단체를 소개한 <한국미술단

체 자료집>을 내놨다.

“한국은 해마다 10여개의 비엔날레가 열리는 ‘비엔날레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시회 기록물들을 맡겠다는 데가 한 곳도 없어요. 생각할수록 씁쓸한 현실입니다.”

김 관장은 그래서 예술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창작 단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관람자가 감상하고 평론하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해요. 나뿐만 아니라 사진, 영화 등 각 분야마다 개인수집가들이 모은 자료가 엄청납니다. 이런 자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관장은 요즘도 배낭을 메고 전시장을 순례하면서 자료를 모은다. 그리고 매일 아침 15종의 신문을 꼼꼼히 챙기고 미술 관련 기사를 일일이 스크랩한다.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평생을 바쳐 수집한 ‘보물’들을 펼쳐놓을 최상의 미술아카이브를 건립하고, 그 보물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사람들과 더 많이 공유하는 겁니다.”

글 김윤숙·사진 강윤중 기자
yskim@kyunghyang.com